

교실 안과 교실 밖에서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생의 삶을 성장시키는,
학생의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역사 수업 사례 나눔



2019 역사교실 학생의 삶과 연계된 역사 수업 사례 나눔

- 목 차 -

1. 김지현 선생님(성남 이매고)의 삶과 연계된 <세계대전> 수업 사례 나눔	1
2. 송수연 선생님(시흥 은행고)의 삶과 연계된 <역사독서 토론> 수업 사례 나눔	2
3. 송수연 선생님(시흥 은행고)의 삶과 연계된 <‘우리는 현재다’ 학생 주도> 수업 사례 나눔	6
4. 송수연 선생님(시흥 은행고)의 삶과 연계된 <발제식 역사 자유 토론> 수업 사례 나눔	8
5. 구혜영 선생님(광명 하안북중)의 삶과 연계된 <일본군 ‘위안부’> 수업 사례 나눔	18
6. 한세웅 선생님(남양주 풍양중)의 삶과 연계된 <역사 프로젝트> 수업 사례 나눔	20
7. 이지은 선생님(화성 봉담중)의 삶과 연계된 <독립운동가> 수업 사례 나눔	29
8. 김효은 선생님(시흥 매화고)의 삶과 연계된 <역사연표 제작> 수업 사례 나눔	33

1. 김지현 선생님(성남 이매고)의 삶과 연계된 <세계대전> 수업 사례 나눔

수업 주제	제1차 세계대전의 특징을 이해하고 평화 감수성 키우기	차시	2
성취 기준	역9261~9262. 제1차 세계대전의 배경과 전개 과정 및 전쟁의 특징을 파악하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민주주의가 확대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핵심 질문	전쟁은 왜 일어나며,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전쟁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까?		
학습경험 만들기	이해하기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젊은이의 입장에서 시 쓰기	
	실천하기	전쟁 희생자를 추도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기	

수업 디자인	배움 열기	▶ 지난 시간 수업 내용 정리 - 각 모둠별 질문을 확인하고 진행 사항을 확인한다.
	배움 활동	▶ 셋 가고 하나 남기 - 발표자를 제외한 모듬의 학생들은 이동하면서 각 모듬이 지난 시간에 선정한 질문에 대해 준비한 답변을 듣고 활동지를 정리한다. ▶ 교사의 설명 및 동영상 시청 - 교사는 학생들의 질문과 질문 사이를 연결하여 제1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을 시청함으로써 전쟁을 감성적으로 접근해보도록 한다. ▶ 모방시 쓰기 - 브레히트의 시를 패러디하여 개인별로 시 쓰기를 한다. - 모듬 내에서 돌아가며 발표하고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한다. - 모듬원들이 쓴 시의 연을 모으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다.
	배움 정리	▶ 마무리 활동 - 수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을 활동지에 간단히 기록한다.
	삶과 연결하기	▶ 캠페인 활동 -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을 기념하여 안내판을 제작하고 영상을 상영하여 전쟁의 참상을 알린다. - 포피의 의미를 알려주고, 붉은 꽃 포스트잇을 이용해 전쟁 희생자를 추도하는 글을 써서 게시한다.
평가 디자인	- 학생들이 모듬별로 정리한 자료와 모듬시를 교실에 게시하여 모듬별 성과를 평가한다. -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제작한 붉은 꽃을 복도에 전시함으로써 일상에서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도하도록 한다.	
수업 성찰	- 학생들에게 전쟁은 우리와는 동떨어진 과거의 사건일 뿐이다. 대부분 교과서에 있는 설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심을 가졌다 해도 영화나 게임을 통해 피상적으로 접할 뿐이어서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 받았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금의 세계 질서를 만들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1918년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세계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스스로 질문을 던져 답하고 발표하는 수업을 구안하였다. 또한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사건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이해하고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모방시 쓰기와 캠페인 활동을 통해 평화적 감수성을 기르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도록 질문 선정과 조사 및 발표에 2차시, 영상 감상과 모방시 쓰기에 따로 1차시 정도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	
학습 자료 및 tip	- 질문을 만들 때 여러 모듬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부터 선정함으로써 핵심 질문을 뽑고자 했으나 학습 구성원의 역량에 따라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 다수 선정된 학습도 있어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요구된다. - 셋 가고 하나 남기 수업의 용이성을 위해 시간적 순서에 따라 1모듬부터 6모듬까지 질문을 임의로 정해주었는데, 본인들의 모듬에서 나온 질문이 아닐 경우 아무래도 자료를 조사하고 제작할 때 열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모듬에서 원하는 질문을 선택하도록 하여 궁금증을 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송수연 선생님(시흥 은행고)의 삶과 연계된 <역사독서 토론> 수업 사례 나눔

관련 과목	고등학교 역사	관련 단위	전단원
수업 주제	역사 독서 토론을 활용한 학생 주도형 수업 활동		차시 5
핵심 질문	역사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학습경험 만들기	이해하기	토론 거리를 안고 있는 도서를 발췌독하고 주요 역사 개념을 이해하기	
	실천하기	도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토론에 참여하고, 나의 삶과 연결하여 생각하기	

수업 디자인	배움 열기	▶ [아이스브레이킹] = 한국사 플랫폼큐브 맞추기 ▶ [학생들이 직접 하는 교육과정 디자인] = 토론 주제 정하기 - 교사는 수업의 컨셉만 정하고,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도서 목차 요약본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알고픈, 이야기 나누고픈 내용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학생은 수업의 컨셉을 이해하고, 도서 목차 요약본을 배부 받아 검토한다. 그 중 이야기 나누고픈 주제를 선정하여 독서 토론 수업 활동 계획을 함께 세운다.				
	배움 활동	토론방식	비경쟁독서토론(송승훈선생님의 틀을 빌림)	분량	약 20~30페이지	
		추천도서	토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역사도서 일부발췌	시간	미리 읽어오기	
		구성	1단계 <준비하며 나의 생각 정리하기> 1. 읽은 내용 중 내 마음에 드는 문장 5문장 고르기 > 3문장으로 추리기 >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 1문장 골라 그 이유까지 작성하기 2. 책 내용과 관련된 세상 일 또는 중요한 나의 경험 1가지 작성하기 3. 책 내용에 관련하여 궁금했던 점 2가지 작성하기 2단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토론 주제 정하기> 1. 마음에 드는 문장을 소리내어 읽고 그 이유를 덧붙여 돌아가며 말하기 2. 관련된 세상일과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3. 궁금한 점 2가지 말하고, 모여진 의문점 중 1~2 순위 정하기 4. 최종 선정된 함께 나누고픈 질문 발표하기 3단계 <최종 선정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토론을 진행하기> 1. 각자 자신의 입장을 정하되, 근거 2가지 이상 마련하여 작성하기 2. 상대방 입장의 근거를 예상하여 작성하고 반박거리 생각해두기 3. 토론 시 입장을 정하여 두 팀으로 구분하기 4단계 <토론 활동> 1. 입론 - 반박- 재반박의 가장 일반적인 디베이트 방식을 취함 2. 토론 진행자의 주도로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 입장을 결정 3. 반드시 생각 및 느낀 점을 작성하도록 함			
			▶ [OT] 미니독서토론 ‘우리는 현재다-어느 고등학생의 일기’ ▶ [1차시 역사독서토론] ‘인물로 읽는 라이벌 한국사’ 묘청vs김부식 ▶ [2차시 역사독서토론] ‘내일을 읽는 토론학교 역사’ 왕권과 신권 ▶ [3차시 역사독서토론] ‘한국사 맞추열전’ 광해군vs인목대비 - 2단계 이후 5why사고기법 활용 추가			
최종 선정된 질문은 ‘광해군의 패륜행위는 정당화할 수 있는가’였다. 이에 광해군은 왜 패륜행위를 해야 했는가에 대한 5번의 ‘왜’를 질문하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각자의 결론을 돌아가며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팀을 결정하였다. - 정해진 팀으로 토론활동을 진행한다.						
배움 정리	▶ [마무리 활동] - 토론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과 문장을 작성하고 발표하기					
삶과 연결하기	▶ [소논문] 쓰기 -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소논문 주제를 선정하기(5why기법 활용-친구들에게 주제 발표					

()학년 ()반 ()번 이름()

2차 방과후아카데미
[역사발표 및 토론] 라이벌 인물史 수업 계획

1. 교사 : 송수연(2층 1학년부 교무실, 010-4545-7649, sysong0816@korea.kr)
2. 일정 : 매주 목요일 17:20~18:40

수업 내용	
17	
8월 24	목 아카데미1 1. 오리엔테이션 - 수업의 방향에 대한 토론
31	목 아카데미2 2. 독서 토론 - 역사 서적 내용에 대한 독서 토론 진행
7	목 아카데미3 3. 역사 토론 1
14	목 아카데미4 4. 역사 토론 2
9월 18	목 아카데미5 5. 역사 토론 3 및 논문 주제 탐색 - 토론의 내용을 토대로 소논문 주제 탐색 및 발표 준비
28	1차 지필
5	추석연휴
12	목 아카데미6 6. 주제 선정 이유 발표 및 논문 개요 짜기 - 선정된 소논문 주제에 대한 발표, 논문 개요 짜기
10월 19	
26	목 아카데미7 7. 소논문 쓰기1
2	목 아카데미8 8. 소논문 쓰기2
9	목 아카데미9 9. 소논문 쓰기3 & 발표 준비
11월 16	대학수학능력시험
23	목 아카데미10 10. 소논문 표지제어작성1 휴강
30	
7	목 아카데미11 11. 소논문 표지제어작성2 및 종강 서를 활동
12월 14	
21	2차지필(1,2)

3. 수업의 목적
- 1) 대입 수시 전형에 걸맞는 활동을 위한 소논문이나 에세이 쓰기, 토론, 발표 등의 역량을 함양한다.
- 2)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인물 혹은 사건을 선정하여 발표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심화 탐색을 진행한다.
- 3) 자신의 현재 위치에 대한 진지한 성찰 및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기회를 갖고, 이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
- 4) 약 100일에 걸친 자신의 계획에 대한 실천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고, 자기 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의미 있게 기록될 수 있는 활동 결과물을 산출한다.

은행고등학교 방과후아카데미 ()학년 ()반 ()번 이름()

[역사발표와토론]	1강. 오리엔테이션 : 반갑습니다.
라이벌인물사	

1. 이름표 만들기 - 학번 / 희망진로 / 좋아하고 재미있는 것 / 싫어하는 것
2. 한국사 큐브 맞추기 - 함께 친해쳐보아요.

3. 수업 계획 세우기	<수업의 컨셉> 역사 발표 토론 라이벌 인물사 독서
--------------	---------------------------------

- 1) 우리가 하고 싶은, 배우고 싶은, 알고 싶은 역사?
- 2)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정해봅시다.
- 3) 독서 토론 및 역사 토론 시 진행자, 서기를 결정해봅시다.

5) 토론 주제 정하기

(예시)

라이벌 한국사	내용을 읽는 토론훈교 역사
1부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 1장 근적왕 있고 본반의 북수전에 금급하니 삼국의 대립과 성장 vs 진흥왕 2장 기림에 그친 시대적 요구 남북국의 성립과 김춘추 vs 엄개소문 3장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신라-불교를 완성하다 한국 불교사의 전개와 원효 vs 의상	1. 단군과 고조선 그래, 고조선은 동북아시아를 아우르던 대륙국이었어 아니야, 고조선은 초기 국가 성립 단계의 연방왕국이었어 2. 신라의 삼국통일 그래, 신라의 삼국 통일은 최후판 평화를 가져 왔어 아니야, 삼국 통일은 외세에 기반 반쪽짜리 통일이었어 3. 서경천도 그래, 서경 천도는 권력을 잡기 위한 명분이었어 아니야, 서경 천도는 권력을 잡기 위한 명분이었어 4. 삼별초 그래, 삼별초는 나라를 지키려 물러가 저항했어 아니야, 삼별초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을 뿐이야 5. 왕권과 신권 그래, 왕권이 강해야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어 아니야, 왕권을 견제해야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어 6. 일직려단 그래, 해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어 아니야, 바다만 지킨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어 7. 불단정회 그래, 봉당은 권력을 놓고 벌인 당파 싸움이었어 아니야, 봉당은 학문과 명분을 바탕으로 한 선진 정치였어 8. 개화파와 척사 그래, 개화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했어 아니야, 건국초기에는 문란한 가세였을 뿐이야 9. 애국계몽운동 그래, 실력을 길러 국권을 찾으려했던 항일운동이었어 아니야, 일만에 타당한 소극적 운동이었을 뿐이야 10. 식민지근대화 그래, 식민지 시대에 경제가 발전한 것은 사실이야 아니야, 식민지 근대화는 수탈을 위한 개발이었을 뿐이야
3부 조선 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7장 그들의 선택이 중신도 변절자도 아니라면 조선 초기의 유교 정치와 성삼문 vs 신숙주 8장 사창가와 실권가, 진정한 동학의 모습을 보이다 한국 유력사의 전개와 이황 vs 이이 9장 위인은 인간이 아닌 '신'이 되어야 하는가 임진왜란과 이순신 vs 유원 10장, 애정과 순종이 빠진 사계지간 조선 후기의 봉건정치와 순시령 vs 문종	
4부 구한말부터 식민지 해방과 분단까지 11장, 정변자들에게 고래 등 터지다? 구한말의 쇄국개화 정책과 대한군 vs 명성황후 12장, 구국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는가 일제의 침략과 이완용 vs 민영환 13장, 빼앗긴 땅, 정신만은 지키리라 일제강점기의 식민사학과 신채호 vs 백남운 14장, 신민가와 아남가, 조국의 운명은?	
생각하는 심재를 위한 토론 콘서트 한국사 정점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9가지 한국사 정점 공필 토론 시리즈 5	

- 1부 총미전전한 고대사 속 정점 이야기
정점 1 [고대] 고대 한반도 남부에 일본의 존재했나요?
정점 2 [고대 남북국] 삼국 통일은 역사 발전에 기여했나요?
정점 3 [남북국] 발해는 우리나라의 역사인가요?
2부 일몰을향한 중근세사 속 정점 이야기
정점 4 [고대] 고려의 원 간섭기는 식민 지배를 받은 시기였나요?
정점 5 [조선] 조선은 일민정에서 승리했나요?
정점 6 [조선] 정조는 독실했나요?
3부 사극번역한 근현대사 속 정점 이야기
정점 7 [근대] 애국 계몽 운동은 한말 국민 회복에 효과적이었나요?
정점 8 [일제] 일제의 궁극적 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가져왔나요?
정점 9 [현대] 1948년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해인가요?

김영삼 vs 김대중 민주화운동의 양대 거목 · 9 박정희 vs 장준하 경제 성장이나 민주주의 발전이나 · 19 윤보선 vs 정구만 계몽문화에 단결한 이유 · 29 김구 vs 이승만 이런 국가를 세울 것인가 · 37 손병희 vs 이윤구 애국의 길 매국의 길 · 49 전봉준 vs 김계현 동학농민운동의 양대 지도자 · 57 최현배 vs 유갑준 최하의 길 개화의 길 · 67 홍건대원 vs 명성황후 조선 왕실을 군인으로 할 수만 있다면 · 75 김건중 vs 민영익 군권 개화나 온건 개화나 · 83 김홍도 vs 신윤복 조선 풍속화의 두 거장 · 91 정조 vs 사헌지랑 왕과 신하의 기묘한 정국 운영법 · 99 영조 vs 사도세자 조선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 107 민정왕후 vs 홍씨전 한 남자를 사랑한 두 여인의 비극 · 115 승지왕 vs 허목 서인과 남인의 대결인 · 123 최명준 vs 김강현 당국은 쪽오시요 나는 주주리요 · 131 허균 vs 이이첨 시대의 이단아들 · 139 강희종 vs 인복대리 말군주일까 재물아일까 · 147 이순신 vs 원균 영웅의 길 반역자의 길 · 157	황윤길 vs 김성일 일본의 전쟁 준비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 · 167 이황 vs 조식 조선 성리학의 큰 별들 · 175 조광조 vs 중종 신하의 나라 왕의 나라 · 181 김종서 vs 세조 왕권 수호를 위한 변명 · 187 세종 vs 최만리 한글 창제를 둘러싼 왕과 신하의 권동 · 193 정몽주 vs 정도전 고려 개혁이나 조선 개화인가 · 199 최영 vs 이성계 나라를 위한 충성의 끝은? · 209 이의민 vs 최충헌 무신 정권을 세운 사람들 · 217 모창 vs 김부식 서경이나 개경인가 · 225 인종 vs 이자겸 외손자와 할아버지의 권력 다툼 · 233 중예 vs 왕건 서로를 나라를 개창하자 · 241 원로 vs 의상 신라를 불국토로 만든 사람들 · 249 김유신 vs 개백 신라와 백제의 마지막 결전 · 255 구술왕 vs 의자왕 신라와 백제, 최후의 승자는? · 261 정수왕 vs 개로왕 고구려 남진 정책의 결과는? · 267 석탈해 vs 호족 이주된 탈해가 임금이 될 수 있었던 이유 · 275 우리 vs 안조 왕은 고구려 왕 아우는 백제 왕 · 281 주몽 vs 대소 주몽의 고구려 건국기 · 287 준왕 vs 위만 단군조선 위만조선 · 297
--	---

1. 읽히는 역사 토론 주제를 선정해봅시다. (순위를 꼭 정하세요. 3순위(이 이상))

주제	선정 이유
1	
2	
3	

2. 이제, 우리가 역사 토론 할 주제를 선정해봅시다.

주제	선정 이유
1	
2	
3	

3. 토론 주제 말고도, 더 공부해보고 싶거나, 알고 싶거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역사 주제가 있나요?

주제	이유

3. 송수연 선생님(시흥 은행고)의 삶과 연계된 < ‘우리는 현재다’ 학생 주도> 수업 사례 나눔

관련 과목	고등학교 역사		관련 단위	전단원
수업 주제	<우리는 현재다> 도서를 활용한 수업 활동			차시 7
핵심 질문	현대사의 주요 장면에서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학습경험 만들기	이해하기	우리는 현재다 발체독을 통해 현대사의 주요사건의 전개과정을 이해하기		
	실천하기	현대사에서의 청소년의 역할을 살펴보고, 우리들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기		
수업 디자인	배움 열기	▶ 우리는 현재다 책 소개 및 교육과정 디자인 - 우리는 현재다 책을 활용하여 모둠별 발표 수업 진행할 것을 안내 <우리는 현재다> 책 목차 1. 청소년, 만세운동을 조직하다 - 3·1운동 2. 어린이·청소년에 대해 생각하다 - 어린이날과 소년단체들 3. 새로운 교육과 세상을 향한 집단행동 - 광주학생항일운동과 동맹휴학 4. 민주주의의 시작에 앞장서다 - 4·19혁명 5. 반공과 유신에 짓눌린 교육 - 박정희 시대 6. 여성청소년노동자의 이름으로 - 경제개발과 청소년 노동 7. 어느 고등학생의 일기 - 5·18광주항쟁 8. 대통령부터 반장까지 직선제로 - 6월 항쟁 9. 교사들과 함께 싸우다 - 참교육운동과 전교조 10. 청소년인권이라는 새로운 물결 - 노컷운동에서 학생인권조례까지 11. 청소년도 시민이다 - 촛불집회와 참정권 운동		
	배움 활동	▶ [1~2차시] 모둠 구성 및 독서활동 - 이질집단을 구성하여, 모둠 내 역할 배분하기 - 각자 모둠에서 선정한 주제에 해당하는 책 부분 발체독(2차시) - 발체독 및 발표 준비시 당시의 ‘청소년’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할 것 ▶ [3차시] 발표 준비 - 모둠원들은 모여서 발표를 준비한다. - 발표의 형태는 자율로 정한다. ▶ [4~5차시] 모둠별 발표 - 모둠별 발표 활동 및 자유 질의 응답 진행 ▶ [6차시] 청소년 인권 독서토론 활동 - 노컷운동 부분 발체독 독서토론		
	배움 정리	▶ [7차시] ‘청소년도 시민이다’ 마무리 활동 - 죽음의 트라이앵글, 교육정책의 문제와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 활동		
	삶과 연결하기	▶ [8차시] 우리의 현재는? - 떡볶이 먹으며 쫄파티 - 현행 교육 정책과 행복한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책의 메시지를 전하며 마무리		
평가 디자인	- 모둠 발표 산출물을 평가한다. - 독서 토론과 작성 논술문을 평가한다.			
수업 성찰	- 방과후 아카데미 수업활동을 통해 시도한 방식이지만, 실제 일과중 수업 활동으로 진행하여도 손색없겠다고 생각한 수업활동이다. 그만큼 책의 구성이 괜찮고, 중고등학생이 읽기에도 적절한 수준이다. 아울러 담고 있는 메시지도 훌륭하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주도적 삶을 성찰하게 만든다. - <우리는 현재다>를 목차별로 발체독시킨 뒤 모둠별로 북콘서트 활동을 진행해도 좋을 듯 하다. 팜플렛 만들기나 미니북 만들기, 카드뉴스, 도서 신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도 좋다.			

[별첨 3] 마지막 수업,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다

은행고등학교 방과후아카데미 ()학년 ()반 ()번 이름()

우리는 현재다	8강. 우리의 현재는?
역사 토론, 발표	

1. 우리의 현재에 대한 이야기

1) 3, 4월동안의 고등학교 생활, 어땠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세 문장으로 표현해봅시다.

나의 학년	문장	의미
	1	
	2	
	3	

2)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학년	긍정적인 부분	의미
	1	
	2	
	3	

2. ‘죽음의 트라이앵글’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1) 영상 내용 요약

2) 2008학년도 대입 수능을 치루는 학생들부터 시작된 이 입시제도는 여러분의 대입에도 적용이 되는 교육정책입니다. 이 입시제도 하에서 대입을 치를 여러분은, ‘현재의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사소했던 것을, 사소하지 않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의 선배이자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어른들과 동등한 한명의 시민으로 살아가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입니다. 현재를 이끌어가는 시민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4. 송수연 선생님(시흥 은행고)의 삶과 연계된 <발제식 역사 자유 토론> 수업 사례 나눔

관련 과목	고등학교 역사	관련 단위	전단원
수업 주제	발제식 토론을 활용한 학생 주도형 수업		차시 4
핵심 질문	역사 속 수탈당한 청춘에 비추어 본 우리들의 청춘은 어떠한가?		
학습경험 만들기	이해하기	역사 속 수탈당한 청춘들의 사례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실천하기	우리들의 청춘이 수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나누기	

수업 디자인	배움 열기	▶ [1차시]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디자인하기 - ‘수탈당한 청춘’이라는 키워드를 주고 이를 정의하도록 한다. 정의한 내용을 서로 이야기 나누며 모두가 함께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 - ‘수탈당한 청춘’의 정의에 비추어, 역사 속 ‘수탈당한 청춘’의 사례를 직접 조사한다. - 조사한 내용을 돌아가며 발표하고, 이를 여덟개의 소주제로 정리한다. - 정리한 소주제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제할 발제자를 선정한다. <table><tr><td>발제 1 - 수탈당한 청춘, 노동</td><td>농업노예 강제징용</td><td>라티퐁디움과 플랜테이션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td><td>이○○ 정◇◇</td></tr><tr><td>발제 2 - 수탈당한 청춘, 사랑</td><td>매매혼 국제결혼</td><td>공녀와 환향녀 강제 조혼 풍습</td><td>오□□ 강△△</td></tr><tr><td>발제 3 - 수탈당한 청춘, 전쟁</td><td>강제징병 전쟁성노예</td><td>6.25 학도병 일본군 ‘위안부’와 라이파이한</td><td>최▽▽ 최☆☆</td></tr><tr><td>발제 4 - 수탈당한 청춘, 배움</td><td>황국신민화 사상교육</td><td>일제강점기 반공 교육</td><td>장♡♡ 강♣♣</td></tr></table>	발제 1 - 수탈당한 청춘, 노동	농업노예 강제징용	라티퐁디움과 플랜테이션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이○○ 정◇◇	발제 2 - 수탈당한 청춘, 사랑	매매혼 국제결혼	공녀와 환향녀 강제 조혼 풍습	오□□ 강△△	발제 3 - 수탈당한 청춘, 전쟁	강제징병 전쟁성노예	6.25 학도병 일본군 ‘위안부’와 라이파이한	최▽▽ 최☆☆	발제 4 - 수탈당한 청춘, 배움	황국신민화 사상교육	일제강점기 반공 교육	장♡♡ 강♣♣
	발제 1 - 수탈당한 청춘, 노동	농업노예 강제징용	라티퐁디움과 플랜테이션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이○○ 정◇◇														
	발제 2 - 수탈당한 청춘, 사랑	매매혼 국제결혼	공녀와 환향녀 강제 조혼 풍습	오□□ 강△△														
	발제 3 - 수탈당한 청춘, 전쟁	강제징병 전쟁성노예	6.25 학도병 일본군 ‘위안부’와 라이파이한	최▽▽ 최☆☆														
발제 4 - 수탈당한 청춘, 배움	황국신민화 사상교육	일제강점기 반공 교육	장♡♡ 강♣♣															
배움 활동	▶ [2차시~5차시] 발제식 토론 활동 진행 - 교사는 미리 읽기자료를 제작해 배부한다(백과사전적 자료, 주요 기사 등 제공). - 한 차시 당 2명씩 해당 주제를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교사에게 전달 자정까지 제출, 교사는 이를 인쇄하여 학생들 모두에게 오전중에 배부 완료한다. - 배부된 보고서를 모두 읽고 오되, 맨 끝단의 ‘함께 나누고픈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오도록 안내한다. 발제 형식(안내) * A4 보고서 형태 : 서론 - 본론 - 결론 -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질문2) 갖춰서 작성할 것. * 발제 방식 1) 보고서를 모두 한부씩 나눠 갖고, 발제자는 요약 정리하여 5분 내외로 발표 2) 발표 후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를 질문형식으로 2가지 준비하여 보고서 끝에 작성 3) 질문의 답변 정리 후 발제자는 다시금 자신의 결론을 정리하여 최종 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 발제자는 파일을 아카데미 수업 전날 자정까지 sysong0816@korea.kr 로 제출 * 교사가 제공하는 읽기자료를 벗어난 내용을 보고서에 작성해도 괜찮음!(오히려 권장!) * 발제자가 아닌 친구들은 해당 읽기자료 및 발제자의 보고서를 반드시 읽고 수업에 참석할 것. * 발제자의 질문은 수업 당일 아침 단톡방에 공지 : 하루종일 잘 생각해보고 수업에 참여할 것 - 수업 시간에는 발제자가 자신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요약, 발제를 15분간 진행하고 함께 나누고픈 질문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 교사는 발제 내용과 자유토론 내용을 복기한다. 학생들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학생 스스로 토론을 주재할 수 있도록 한다. - 매 주제당 약 1시간 반씩 진행했던 것 같다.....(...) 그만큼 자유롭고 또 치열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배곯다가 밤 9시에 집에 간 날이 부지기수.																	
배움 정리	▶ 마무리 활동 -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발제 자료를 정리하고 보충한다.																	
삶과 연결하기	▶ 우리의 교육과정을 바라보고, 교육정책 제안 프로젝트와 연계하기 - 발제식 토론 중 여러번 언급된 교육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기 - 학교가 바람직하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생각해보기																	

수업 성찰	- 교직 생활의 전환을 이루었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크게 남은 수업활동이었다. 학생들에게 교사가 디자인하여 제공한 것이라고는 단순히 '키워드'를 제시했을 뿐, 아이들이 직접 교육과정을 디자인하고 이를 발제하고, 또 토론해가면서 배움의 깊이를 더해가는 이상적인 수업이었다. - 물론, 상황이 특수했다. 사실 이 강의는 8명의 은행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수업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개강될 수 없는 강의를 아이들이 부담금액이 크더라도 반드시 개설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으며, 수업 방식 상 아이들이 발제를 제때 해오지 않으면 절대 운영될 수 없는 수업 활동이었다. - 일과중 교실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조금 더 치밀하고, 조금 더 다양한 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는 수업 활동으로 구성해서 진행하고 싶다. 꼭. 함께하실분?? ㅠ
-------	---

[별첨 4] 마지막 발제, 우리의 청춘을 지지하다(발제자 송수연) 보고서 일부 발췌

I. 서론 매년 여전하다. 이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일개 제도의 변화에 따라 '교육'이 급변하는 시대. 연일 공청회니 포럼이니 열리지만, 주최측에 학교가 없다. 아니 토론회조차도, 심지어 청중 중에도 교사나 학생이 없다.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우리인데, 사실은 정말 비상식적인 이런 일들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 슬프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는 이 아카데미 수업에 모였다. 그리고 우선 역사에서의 청춘의 이야기를 살피고, 역사에 물었다. 현재를 사는 우리의 청춘은 지금 어디에 놓여있는가? 50분의 수업시간이 부족해 매번 우리는 3시간여를 치열하게 생각하고 나눴다. 다양한 주제들을 깊게, 넓게, 얇게, 즐겁게 만졌다. 이 글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오늘 마무리하고 정리하여, 시험 기간 이후 우리가 '현재화'하는 작업의 초안이다. II. 본론 학생들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재다'라는 방과후 수업은 '현재를 살아가는 학생'을 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업이다. 또한 수업의 주된 방향을 '학생이 만들기'로 설정했다. 교사는 그저 틀을 만들어주는 조력자여야 했고, 학생들이 직접 부딪히고 발표하고 생각하고 성장해간다는 것이 중요했다. 이에 작년 첫 방과후 수업은 한국사의 다양한 장면 중 대립되는 사상을 가졌던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텍스트를 읽고 토론하기, 자신의 희망진로와 역사를 접목시킨 주제를 선정하여 소논문 작성하기의 제재를 다뤘다. 이어 이번 학기 1텀 방과후 수업에서는 '우리는 현재다'라는 텍스트를 읽고 각 조에서 근현대사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현재를 주도해갔던 역사 이야기를 직접 발표하고 난 뒤, 지금의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써내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2텀 방과후 수업으로 개설한 이번 '우리는 현재다'는 1텀 수업의 마지막 시간에서 힌트를 얻고 개설한 것이었다. 마지막 수업시간,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이야기했다. '최현대사'에 해당하는 '노컷운동'과 '죽음의 트라이앵글' 이야기였다. 3학년 학생이 유독 많았던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당면한 우리의 '힘듦'을 토로했다. 벌써 10여년 전의 이 이야기 이후 우리의 학교는 솔직히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가?를 서로에게 물었다. 그 시기 지금의 교육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 회의감이 들고 있던 차였다. 이에 다음 수업은 역사에서의 힘듦을 살피본 뒤, 우리의 힘듦을 토닥여주자고 생각했다. 그렇게 수업의 키워드를 결정했었다. '수탈당한 청춘'. 또한 수업 방식을 바꾸었다. 교사는 학생에게 판만 깔아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업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는 동료 학생이기로. (1) 첫시간 수탈당한 청춘의 역사를 통한 '교육과정 디자인' 우선, 수탈당한 청춘을 정의했다. 다양한 이야기¹⁾를 종합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수탈당한 청춘'의 뜻은 다음과 같았다. <i>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야겠다고 정의한 것을 하도록 강요하는 어떤 무언가로 인하여 그 시기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젊음</i> 이어 위와 같은 정의의 '수탈당한 청춘'을 역사적 사건 중에서 찾아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주제로 설정하고 교육과정을 디자인했다. 수업 방식도 토론하여 결정하였다. 발제식 토론. 디자인과 리디자인 작업을 거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tr> <th rowspan="3">5월</th><th colspan="2">일정</th><th>수업 내용</th></tr> <tr> <td>14</td><td>월 아카데미1</td><td>방과후 아카데미반 개설 목적 OT 개별 발표 주제 선정 및 교육과정 디자인</td></tr> <tr> <td>21</td><td>월 아카데미2</td><td>교육과정 리디자인 및 읽기자료 배부</td></tr> </table>				5월	일정		수업 내용	14	월 아카데미1	방과후 아카데미반 개설 목적 OT 개별 발표 주제 선정 및 교육과정 디자인	21	월 아카데미2	교육과정 리디자인 및 읽기자료 배부
5월	일정		수업 내용										
	14	월 아카데미1	방과후 아카데미반 개설 목적 OT 개별 발표 주제 선정 및 교육과정 디자인										
	21	월 아카데미2	교육과정 리디자인 및 읽기자료 배부										

	28	월 아카데미3	발제 1 - 수탈당한 청춘, 노동
	1	금 아카데미4	발제 2 - 수탈당한 청춘, 전쟁
	4	월 아카데미5	발제 3 - 수탈당한 청춘, 사랑과 여성
	8	금 아카데미6	발제 4 - 수탈당한 청춘, 배움 그리고 우리
6월	11	월 아카데미7	우리의 청춘은 현재다
	18	월 아카데미8	우리의 청춘은 미래다
	25	월 아카데미10	우리의 청춘은 행복하다
			포럼 활동 준비 및 마무리 종강 파티

주제		발제 주제	발제자
발제 1 - 수탈당한 청춘, 노동	농업노예	라티퐁디움과 플랜테이션	이○○
	강제징용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정◇◇
발제 2 - 수탈당한 청춘, 사랑	매매혼	공녀와 환향녀	오□□
	결혼	조혼	강△△
발제 3 - 수탈당한 청춘, 전쟁	징병	일제 강제징병과 6.25 학도병	최▽▽
	전쟁성노예	일본군'위안부'와 라이파이한	최☆☆
발제 4 - 수탈당한 청춘, 배움	식민지교육	일제강점기 황국신민화 정책	장♡♡
	사상교육	반공 교육	강♣♣

발제 방식

* A4 보고서 형태 : 서론 - 본론 - 결론 -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질문2) 갖춰서 작성할 것.

* 발제 방식

- 1) 보고서를 모두 한부씩 나눠 갖고, 발제자는 요약 정리하여 5분 내외로 발표
 - 2) 발표 후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를 질문형식으로 2가지 준비하여 보고서 끝에 작성
 - 3) 질문의 답변 정리 후 발제자는 다시금 자신의 결론을 정리하여 최종 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 * 발제자는 파일을 아카데미 수업 전날 자정까지 sysong0816@korea.kr 로 제출
- * 교사가 제공하는 읽기자료를 벗어난 내용을 보고서에 작성해도 괜찮음!(오히려 권장!)
- * 발제자가 아닌 친구들은 아침에 발제 보고서와 해당 읽기자료를 읽고 수업에 참여할 것.
- * 발제자의 질문 역시 보고서와 함께 당일 아침에 제공.

그리고 이 수업 프로젝트의 명칭이자 대주제를 결정하였다. △△이의 제안이었고, 모두가 동의했다.

우리의 청춘은 현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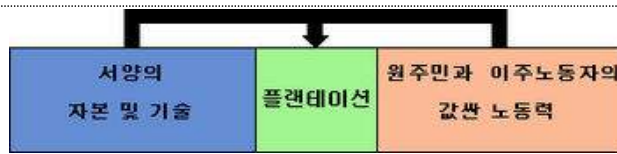
(2) 둘째시간 (발제1, 2) 수탈당한 청춘, 노동

첫 발제자는 ○○이었다. ○○이의 플랜테이션 농업 발제 이후 약간의 토론, 그리고 ◇◇이의 강제징용과 관련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날은 가볍게(?) 7시 조금 넘어서 마무리했다.

2-1. 플랜테이션 발제(이○○) 및 토론

라티퐁디움을 발제하기로 했던 ○○이는 주제를 결정하고 조사하다보니 '아직까지도 플랜테이션 농업 방식이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에 주목했다. 그리하여 플랜테이션 농업에 포커스를 맞춘 발제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다루었다.

1) 수탈당한 청춘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서로에게 발표했다. 이를 종합하여 우리만의 정의를 만들었다.



플랜테이션 농업 문제, 해결하려면?

재배노동자나 농민들에게는 운송비를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없어서 구매자가 부담을 해야겠지만 그런 상황 정도는 감수하고 공정한 무역, 거래를 위해서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정무역은 국제무역 중에서 백분율로 보면 0.2%정도로 아직은 극소수지만,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백분율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사람들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하지만 선진국민, 문화적인 국민, 평등의식을 갖추고 있는 국민이라면 공정무역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²⁾

발제자였던 ○○이가 모두와 나누고 싶었던 질문은 다음의 두가지였다.

1.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 플랜테이션 농업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 있을까요?
2. 아직까지 플랜테이션 농업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력한 국제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주됐고, 우리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공정무역의 활성화라는 견해가 나왔다.

그리고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의견이 큰 공감을 샀다. 그들에게도 교육이, 그리고 우리에게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및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남일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2. 강제 징용 발제(정◇◇) 및 토론

강제징용 문제를 선택한 ◇◇이는 하시마섬과 여성근로정신대, 망간광산과 사할린에서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다루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중요한 것은 왜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에 있었다. 굴욕적인 한일협정 합의로 인해 국가적인 해결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모두가 분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본다. 한일협정이라는 과오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일협정이 비록 독재자에 의해 국민들의 의견과는 아무 관련없이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안이 효력을 발한 경우가 있고 더하여 국제법상의 기준을 이용해 한일협정의 빈틈을 찾으려 하여도 한일협정과 같은 협정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널리 퍼졌으며 그들이 무효화 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 당시 해당 협정을 통해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생긴 문제가 가장 큰 요건인데, 이를 빌미로 재해석을 요구하는 것도 상당한 무리수라고 파악한다. 국내사정상의 문제이지 일본이 이미 과거에 책임(한일협정을 통한 차관배치)을 진 상태에서 그들에게 다시 책임을 묻는 것은 편이 나간 것이다. 강제징용이 인권침해의 범위에 있는 것이 확실하고 국제법상의 기준에 들어오는 것도 모두 맞다. 그러나 해당 협정이 이미 과거에 다른 국가에서 비슷한 사례로서 취급되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나라가 이 법안을 건들게 되면 타국의 협정도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취할 자세가 무엇일지 궁금하고 수많은 장애물을 타개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낀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우호적인 관계가 아닌 것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알만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 원인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과거와 일본의 태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런 관계를 악화되지 않게 하고 우호적인 관계로 상승시키는 동시에 징용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 두 나라가 이 문제에 있어 타협점을 찾아 관계개선을 이루어내기를 바란다.³⁾

발제자였던 ◇◇이가 모두와 나누고 싶었던 질문은 다음의 세가지였다.

1. 징용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한일협정을 들어 방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일본에게 대처할 자세가 무엇일까?
2. 징용문제를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많지 않다.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3. 일본의 역사왜곡을 막을 방안은?

강력한 국제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주됐고, 우리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공정무역의 활성화라는 견해가 나왔다. 사실상 한일협정에 대한 재협정은 국제법상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피해자가 우리인데도 당한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 하는 이 시점에 너무 가슴 아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여론이 중요할진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슴아픈 이 역사에 대해 잘 모른다. 그래서 미디어 활용, 파급력 있는 공인들의 사회활동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누군가가 우리 역사 수업에서 다 배우지 않았는가? 라고 반문했고, '배운 것과 겪은 것'의 차이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겪은 일이 되어야 공감과 이해가 시도될 것인데 우리의 교육, 특히 역사교육은 겪은 일이 아니라 그저 시험을 위한 활자들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우리가 우리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 즉 체험식 학습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3. 결론 - 체험식 교육활동의 필요성

청춘의 노동력이 수탈당한 역사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이 아픈 문제들이 아직도 '미해결'인 상태에 주목했다. 이에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과 이해, 공감'을 표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의 변화'를 말했다. 체험식 교육활동으로 학교 교육이 변화해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바라볼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3) 셋째 시간 (발제 3, 4) 수탈당한 청춘, 여성(사랑)

세번째 발제자는 □□이었다. 다만 △△이가 이날 바빠서(...) 조혼 풍습에 대한 △△이의 발제와 토론이 먼저 이루어졌다. 이후 □□이가 공녀와 환향녀 발제를 했고 약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아무래도 여성 인권과 관련된 주제다보니 토론이 길어졌다. 이어 결국 8시까지... 배고파.....

3-1. 조혼 풍습 발제(강△△) 및 토론

△△이는 국제 이주 여성의 삶을 조사하다가, 이보다는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조혼 관습에 주목하고 조사하였다. 특히 방글라데시와 예멘에서의 조혼 악습을 아직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사례를 자세히 발표하고, 여성 인권 운동가인 누주드 알리에 대해 알려주었다. 이전에는 역사적 근거라도 있었으나, 가슴 아프게도 '대물림'되고 있는 조혼.



조혼은 가난이 계속되는 한 끊임없이 대물림 된다. 여성의 인권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과거보다 많은 소녀들이 소리를 내고 자유와 청춘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들의 사회에서 그런 행동은 비난과 질책을 받는다.

공부를 하고 자신의 꿈을 찾고 노력해야하는 많은 소녀들이 자신보다 20살이상의 남성과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고, 아이를 키우며 청춘을 짓밟히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그리고 우리보다 어린 어린신부들이 더 이상 어린신부가 아닌 평범한 소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세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⁴⁾

발제자였던 △△이가 모두와 나누고 싶었던 질문은 다음의 두 가지였다.

- ① 조혼은 정부에서 금지하고 많은 단체들이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가족들에 의해 진행중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조혼을 멈출 수 있을까?
- ② 오랜시간 관습으로 이어져왔고 경제적인 상황, 종교적인 이유에 의해 돈을 받고 어린신부를 파는 부모의 잘못과 돈이 필요

한 어린신부의 부모에게 돈을 지불하고 어린신부를 맞이하는 신랑 중 누가 더 잘못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막상 조혼에 대해 알아보니 국제법의 저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기본적인 매매혼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아울러 여성인권 뿐만 아니라 연대를 통해 집단 전체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잘못의 여부를 가를 때에는 최근 이슈인 페미니즘 교육과 여혐과 남혐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공녀와 환향녀 발표가 끝나고도 이어지게 되었다.

3-2. 공녀와 환향녀 발제(오□□) 및 토론

공녀는 끌려간 자들, 환향녀는 돌아온 자들이라는 용어로 시작한 □□이의 발제. 실제 앞선 조혼 발표에 상대적으로 공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지키기 위한 조혼'이 이루어졌다는 문장에 다같이 가슴아파했다. 특히 환향녀 같은 경우도 사실 현대 사회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도 나왔다.

‘공녀와 환향녀’ 라는 말을 보자마자 생각든 것은 ‘끌려간 자와 돌아온 자들’이라는 것이다. 역지로 끌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끌려간 이국 땅에서 눈을 감은 공녀들. 그리고 돈 때문에 청군에게 끌려간 여인들이 겨우 돌아온 고향에서 외면받고 손가락질 받던 환향녀들. 나는 억울하게 삶을 살아갔을 그녀들의 삶을 그저 보고 넘기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다.

...(중략)...

공녀로 끌려간 모든 고려, 조선의 여인들은 한 평생을 다른 이의 땅에서 고된 노동과 힘든 삶을 보내야만했고 돌아올 수가 없었다. 환향녀 또한 겨우겨우 살아 돌아왔음에도 차가운 시선과 외면 속에 홀로 도망쳐야하는 상황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환향녀는 모든 책임과 잘못을 본인이 가진 채 끝까지 안고 가야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했다.

난 아직도 과거와 같은 일이 지금 현재에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고 느낀다. 공녀와 환향녀 모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에 의해 끌려가고 겁탈당하고 쫓겨났다.

특히 환향녀는 그저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로 이혼을 당하고 조선사회에서 철저히 무시 받았다. 오히려 피해자인 그녀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살아가야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웅크리고 잘못을 느끼는 모습들이 마치 얼마 전에 봤던 성폭행 피해자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되었다. 과거에도 잘못을 저지른 자는 오히려 떳떳하고 피해자는 모든 일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숨어버리고 있다. 공녀처럼 역지로 끌려가 화냥년이라는 안 좋은 단어를 듣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계속되는 비극의 역사와도 같다고 느껴진다.⁵⁾

발제자였던 □□이가 모두와 나누고 싶었던 질문은 다음의 두 가지였다.

1. 그 당시에 공녀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은 없었을까?
2. 지금 환향녀(화냥년)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덧붙여 전쟁성노예 문제와 결부시킬 수 있도록 교사의 덧붙임 문항이 제시되었다.

선생님 덧붙임. 환향녀와 공녀, 나아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역사적 아픔을 떠올려봅시다. 성적(성폭행 및 성추행 등) 피해여성들이 숨어야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어 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공녀를 돈을 주고 환향시켰던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성리학적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던 시간이었다. 특히 여성인권과 연계하게 되면서 미투 운동이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와 ☆☆가 겪었던 교실 내 메갈, 워마드 등의 여혐문제와 이분법적 사회구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제대로 된 젠더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3-3. 결론 - 미투 시대 이후 변화된 젠더 교육의 필요성

여성의 청춘이 처참하게 수탈당했던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교육에서의 제대로 된 ‘페미니즘’ 교육의 부재를 안타까워했다. 미투 운동 이후의 성교육은 이전의 성교육과 확실히 달라야 할 것을 이야기하며 수업을 마무리했다. 이 시대에 남아있는 조혼 악습 폐지와 공녀와 환향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4) 넷째 시간 (발제 5, 6) 수탈당한 청춘, 전쟁

다섯번째 발제는 ▽▽의 '학도병' 보고서였다. 한국전쟁 학도병에 대한 이야기는 국방의 의무와 여성 병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유독 예민하고 다양한 주제, 사방으로 튀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강제 징병, 의무병 제도의 폐해, 정경유착과 방산비리, 군대내 성폭력과 군대 내 위계서열 풍조 문제, 나아가 지방선거까지 ㅋㅋ 여섯번째 발제인 '라이프이한 문제' 역시 핫이슈였다. 피해와 가해의 역사를 분류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연대한 인권문제로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결국 또 여덟시 반... ππ 그러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오간 시간이었다. 특히 현충일 이전에 전쟁에서의 청춘 수탈에 대해 살펴보게 되어 학생들에게 이번 현충일은 유독 달랐으리라 여겨진다.

4-1. 한국전쟁 6.25 학도병 발제(최▽▽) 및 토론

▽▽는 강제징병이 주제여서 일제 시기 강제 징병을 조사하다 6.25 한국전쟁에서의 학도병 이야기에 더 관심이 가서 자세히 조사했다 한다. 자원입대의 이면을 살펴보면, 일제와 다를 바가 없었던 공권력에 함께 분노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6월 6일 현충일 직전에 이루어진 발제이다 보니 현충일과 관련한 계기교육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IV. 결론 - 과거를 기억하는 현재⁶⁾

앞에서 살펴보았듯, 수많은 전투로 학도병은 전사하였고, 학도병이 전쟁에 자원하여 입대하였다는 것은 마냥 애국심이 강한 학생들을 칭찬해서는 안 되며, 학도병이 나타나지 않도록 전쟁보단 평화를 지향해야한다.

군산에서 시작되어 화개 전투, 낙동강 전투, 포항 전투에서 전사한 수많은 학도병들을 소재로 한 영화나 다큐멘터리 자체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영화 '포화속으로', '태극기 휘날리며'를 잇는 영화는 더 이상 나오고 있지 않은 데, 이슈되는 작품이 없다고 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마저 잊어선 안 된다. 이 글의 서론에서 말했듯, 다가오는 현충일에 강원도 및 각 지역에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은 전쟁으로 인해 청춘을 빼앗긴 학도병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었지만 과거 나라를 위해, 혹은 우리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켰던 모든 분들을 기억했음 한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께 알려 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옆에서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듯 적이 담배를 켜고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이우근' 학도병의 편지 중 일부>

발제자였던 ▽▽의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시사하고 있었다.

- 1) 전쟁 시 인권유린은 피할 수 없는데 혹시라도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우리가 혹은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 2) 우리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공휴일을 그저 휴일로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시대가 변화하여 학도병 문제는 없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의 국방력이 충분히 갖춰져야

지만, 전쟁 중 인권 유린이 덜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지금의 의무병제도는 어떠한가? 의무병 제도의 거취여부를 넘어서서, 군시절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제에 대한 작은 토론도 나뉘었다. 특히 위계서열에 대한 이야기 중,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현충일과 같은 법정공휴일을 휴일로만 여기는 것의 풍조를 안타까워했던 우리들은, 마을 행사 차원의 계기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지역 차원의 행사를 학생들이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강의식으로 배우는 형태의 역사교육이 아닌, 체험식 계기교육과 체험식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2. 라이파이한과 위안부 발제(최☆☆) 및 토론

☆☆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사하다가 우리가 가해자의 입장에 서게 된 역사인 '라이파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더 자세히 조사하게 되었다. 사실 주제의 무게에 비해 자료 검색이 용이하지 않아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이전의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이었다가 사과를 해야하는 입장이 되자 만감이 교차함을 느꼈다.

IV. 결론

일본군이 위안부라는 이름 하에 조선의 청춘에게 했던 짓은 무참히도 잔혹하다. 이로 인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도 상처를 입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에게는 일본이 어서 빨리 진심이 담긴 사과에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결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잊혀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군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이 저질렀던 무참한 행동과 비슷한 짓을 베트남 여성들에게 저질렀다. 베트남 현지에서 라이파이한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 또한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피해국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여성들과 라이파이한인 사람들에게겐 무참한 가해국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⁷⁾

발제자였던 ☆☆는 역시 라이파이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어했다.

- 1) 베트남 여성들과 라이파이한에 대하여 가해국으로서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과 위안부 피해국으로서 일본에게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
- 2) 라이파이한에게 한국 정부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야할까?

일단은 우리의 사과, 보상이 먼저라는 ♀♂의 강한 주장으로 토론이 시작되었다. 라이파이한 문제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시의 민간인 학살의 가해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베트남 곳곳에 한국인 증오비석이 세워졌다는 ☆☆의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독일이나 미국식의 적극적인 사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특히 라이파이한 문제의 해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우리가 노력해야 함을 느꼈다. 특히 실질적인 통일 교육의 이야기도 잠시 대두되었다.

4-3. 결론 - 실질적인 계기교육과 인권교육, 역사교육 변화의 필요성

평화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내보았던 시간이었다.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며, 이를 위한 평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특히 실질적인 계기교육과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역사교육에서도 가해의 역사를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역사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어 교사 입장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수업 시간이었다.

(5) 다섯째 시간 _ (발제 7, 8) 수탈당한 청춘, 배움

마지막 시간이었다. 일곱번째 발제는 ♀♂가 진행한 '반공 교육'이었다. ♀♀가 먼저 했어야 했지만 이날은 ♀♂가 바쁜(...) 날이었기에 먼저 발제를 진행했다. 앞으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안겨준 반공교육 발제 이후 ♀♀가 진행한 '황국신민화 정책' 발제가 이어졌다. '우리'를 빼앗김을 아파하며 토론이 진행되었고, 역시 8시가 넘었다. π

5-1. 반공교육 발제(강♀♂) 및 토론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주의적 교육을 사상교육으로 정의하고, 그 중에서도 현대의 반공교육을 문제삼았다. 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상교육의 부정적 영향을 강하게 비판한 ♀♂의 발제가 이어진 뒤 다양한 견해를 나누었다.

특히 70년대에는 박정희가 5·16군사정변을 성공시킨 후 내건 혁명공약 제1조는 반공의 강화를 표방하고 있었으며, ‘반공법’ 제정과 같은 실제 정책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이는 교육적인 모습으로도 많이 나타나었다. 국민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실린 ‘동물 농장 이야기’에는 북에서 온 이리떼가 평화로운 동물농장을 습격하는데 이리떼를 자세히 보면 이민군복에 붉은 완장을 차고 있다. 또한 당시의 만화영화 ‘뽀이 장군’에서도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는데 주인공인 뽀이가 북한으로 잠입하여 본 집단 농장의 모습은 비쩍마른 북한의 동포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군인들이 이들을 통솔하며 이들의 수령은 욕심많은 돼지였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학생들은 공산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반공표어나 반공글짓기등을 하였으며 웅변대회에 나와 “저 사악한 북괴를 죽여 원수를 갚읍시다!”와 같은 핏발 서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였다. 그럴때마다 주변의 어른들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다.

...(중략)...

한국의 통일관련교육은 남북관계와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분단 이후 1970년대까지는 북한을 대결의 상대로 인식하여 반공교육에 치중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남북대화가 추진되면서 북한을 대화하면서 대결하는 상대로 인식하여 통일·안보교육으로 전환하였다. 1990년대는 남북관계와 통일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진취적인 통일교육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통일·안보교육차원을 ‘통일교육’ 차원으로 전환시켜 통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북한과의 긍정적인 대화의 모습으로 들어서면서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⁸⁾

♂♂는 사상교육으로 인한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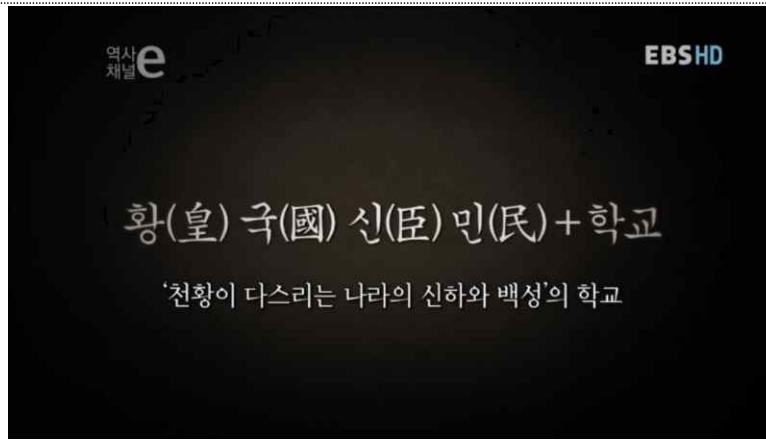
1. 정부가 주관하는 사상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2. 내가 만약 교육 관련 일을 하는데 국가에서 아이들에게 사상교육을 시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종진국 수준의 교육을 이제는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이의 이야기로 토론의 포문이 열렸다. 좋은 사상도 주입하면 안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 제기에 어떤 것이든 과정으로 인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국기에 대한 경례를 진행하며 인지했는지의 여부를 나누며, 이제는 시대가 변화했고 교육의 방향성도 변화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였다.

5-2. 황국신민화 교육 발제(장♡♡) 및 토론

민족의 정체성을 수탈당해야 했던 일제강점기 하 청춘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특히 ♡♡는 ‘내가 그 때 살았더라면’이라는 가정을 두고 조사에 임했다고 한다. 살기 위한 ‘친일’, 주입된 황국신민화 사상에 따른 ‘행동’과 ‘가치관’을 두고 무어라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제기에 모두가 진지해지는 시간이었다. 특히 ‘국민’학교가 황국신민화 학교의 본래 뜻을 지니고 있었던 바를 지적하며 역사 바로 세우기가 늦어도 너무 늦었던 것이 아닐까 함께 한탄하기도 하였다.

2) 이○○, <라티폰디움과 플랜테이션>, p.2, 6.
 3) 정◇◇, <강제징용>, p.9~10.
 4) 강△△, <청춘들의 꿈을 짓밟는 ‘조혼’>, p.7.
 5) 오□□, <공녀와 환향녀>, p.2, 4.
 6) 최▽▽, <한국전쟁과 6.25 학도병>, p.5.
 7) 최☆☆, <라이파이한과 위안부>, p.5.
 8) 강♂♂, <반공교육>, p.4.
 9) 장♡♡, <황국신민화 정책>, p.6.



일제강점기, 일본은 자신들의 이익과 노동력을 위해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이용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만들기 위해 자유를 억압하였다. 황국신민화 정책은 단순히 일본의 이익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들이 스스로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잃게 만든 아주 비인격적인 정책이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수많은 조선인들이 한국어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다 희생되었다. 우리는 그들에 감사해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수탈당했던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앞으로는 수탈당하지 않고堂堂히 청춘을 누리며 살아갈 '우리'로 나아가야한다.⁹⁾

♡♡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했다.

만약 당신이 이 시대에 살게 된다면, 창씨개명이나 황국신민서사 암송같은 황국신민화정책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에 교사도 손가락을 얹어보았다. ㅋㅋ 요즘 고민이 되는 한국사 필수교육 역시 사상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닐까? 라는 의문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선생님 덧붙임. '한국사'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또한 결국 우리나라에 대한 어떠한 '사상'을 교육하는 것 아닐까?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창씨개명을 하면 피해자인가 가담자인가, 라는 ◇◇이의 지적에 시작된 '가해자'의 범주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나치즘과 연관해서 토론이 확장되었을 때에는 '방관적 가해자'를 떠올리기도 했다. 우리에게 방관적 가해자가 될 기회가 주어졌다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사상교육의 무서움에 관해서도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묘한 통치 방식의 일환이라는 생각과 함께 반공교육, 황국신민화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5-3. 결론 - 교육, 교과서, 교육과정.

한국사교육이 필수여야 하는가, 를 두고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잊혀지면 안 된다고 시작했던 이 이야기는 밤이 다 되도록 끊기지 않았다. 지식은 다 알기 위한 욕심으로부터 지혜가 된다면 말에 모두가 공감했다. 한국사 교육은 사상교육인가? 라는 질문에 '역사는 객관적이지 않다'는 말로 대답이 같아졌다. 사상교육의 문제를 경계하기 위해 다양한 시선을 담아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다시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의가 대두되어 비판받았다.

여기에서 교과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은 사실 이런 토론식, 체험식 교육을 불가하게 만드는 교과서와 교육과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필수 이수'과목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시대는 변화해가는데, '지식'이라고 제한한 범주는 변화하지 않으니, 나아가지 못하는 건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멈춰있는 교육 종사자들이지 않을까? '수능 필수' 과목도 비판받았다. 학생들의 재능이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은 처사이며, 이는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 교과서, 교육과정과 입시제도 등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갔던 시간인듯 하다. 우리의 결론은,

우리가 받는 이 '교육'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5. 구혜영 선생님(광명 하안북중)의 삶과 연계된 <일본군 '위안부' > 수업 사례 나눔

관련 과목	중학교 역사②	관련 단원	Ⅱ. 민족 운동의 전개
수업 주제	1385차 수요시위 참여를 통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이해	차시	2
관련 성취 기준	역9234.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주변 국가와의 역사 갈등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		
핵심 질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학습경험 만들기	이해하기	민족말살정책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해하기	
	실천하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고민하기	

수업 디자인	배움 열기	■ 그림책 「꽃할머니」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다가가기
	배움 활동	■ 수요시위 여는 공연인 '바위처럼' 율동 배우기 ■ 자료집 읽기 - 수요시위에서의 7대 요구 파악 (정의기억연대) - 수요시위의 의의 유추하기 ■ 수요시위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 여는 공연에서 율동 공연 - 신청자에 한해 학생 자유발언 ■ 도보 5분거리에 있는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답사
	배움 정리	■ 기자가 되어 오늘 있었던 일을 취재하는 현장 기자가 되어 기사를 써본다. ■ 자신에게 의미있는 사진 1장씩을 제출한다.
	삶과 연결하기	■ 방학 중 열리는 수요시위에 참여해 보지 않은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본다. ■ 특히 매년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일 행사가 대부분은 방학 중이므로 참여해보고, 다른 수요시위 때와는 또다른 공기를 느껴본다.
평가 디자인	- 학생들이 제출한 신문기사를 교실에 게시한다. - 학생들이 제출한 사진들을 교실에 게시하고, 학급 친구들 전체에게 가장 의미있는 사진을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수업 성찰	- 이번 수업을 통해 아는 것과 해보는 것의 차이를 느끼고 깨달도록 하고 싶었다. 또한 역사란 외워야 하는 과거의 기록이 아닌,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현재라는 것도 알게 하고 싶어 이번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 역사②는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다. 현대사는 말 그대로 현재의 역사다 보니, '완성'되지 않고 지금도 만들어가 가고 있는 역사이다. 나는 학생들 스스로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교과서에도 등장하고,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다. 나아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16세인 '지금'의 '나'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다. - 정규 수업과정과 평가에 반영하기에는 환경적 제약이 있어 그러지 못했는데, 좀 더 고민을 해서 정규 수업과정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학습 자료 및 tip	- 수요시위에 가기 전에 꼭 자료집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고, 자료집에 나온 내용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알고 있어야 수요시위 현장이 더 깊이 마음에 와 닿을 것 같다. - 대한민국 박물관 특별전시실에 어떤 것이 전시되어있는지 미리 알고, 퀴즈나 미션을 제공하면 더 집중해서 박물관을 탐방할 수 있을 것 같다. - 수요시위 바위처럼 여는 공연을 한다면 11시부터 가서 무대 앞쪽에 자리를 잡아놓고, 근처에 있는 수송 공원에 가서 율동을 맞춰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시위 무대가 좁아 앞쪽에 자리를 잡아 놓지 못한다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비좁다.	

※ 실제 학습활동 당시의 사진이나 활동지, 결과물 등이 있다면 꼭 첨부해주세요. 발표 PPT 자료와 지도안 자료는 PDF로 변환되어 역사교실에서 배포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글감으로 현재를 살피려면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역사교실



학교 밖 역사교실

1385차 수요시위



- ◎ 날짜 - 2019.05.01(수)
- ◎ 장소 - 평화회 소나당 일대
- ◎ 학년 -
- ◎ 이름 -

- 따뜻한 마음 · 차가운 머리로 함께하는 사제동행 프로젝트 -

III. 사제동행 프로젝트 사전 읽기 자료

1. 수요시위

가. '수요시위'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전 일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되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이행 등 문제해결 그리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요구해 왔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피해자와 시민들이 연대하는 장소,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공간, 여성인권과 평화를 외치는 장, 국경을 넘어선 연대의 장으로 자리 잡아왔다. 수요시위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이 주최하고 20개의 정대협 회원단체와 여성단체 및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들이 주관 및 참여하여 26년을 이어온 우리 모두의 소중한 역사이다.

나. 수요시위를 통해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7가지

-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사실을 인정하라! (전쟁범죄 인정)
- 둘, 이에 대해서 공식사죄 하라!
- 셋, 만행의 전체 내용을 밝혀라! (진상규명)
- 넷, 희생자들을 위해서 위령비를 건립하라!
- 다섯, 생존자나 유족에 대해서 보상하라! (법적배상)
- 여섯, 이와 같은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교육의 현장에서 이 사실을 계속 가르쳐라!
- 일곱, 책임자를 처벌하라! (전범자 처벌)

함께 읽으면 좋은 도서	『25년간의 수요일』, 『꽃할머니』, 『틀』, 『평화의 소녀상』, 『아사코의 질문』
함께 보면 좋은 영화	『아이겐스피크』, 『허스토리』, 『귀환』, 『눈길』

우리가 함께하면 길이 된다

플리쳐상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1385차 수요시위에 참가하여 전쟁범죄 인정, 공식사죄, 법적 배상을 위해 바가나나 높이로 바위처럼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항상 든든한 나무처럼 지켜주는 학생들과 정의 기억연대를 만나는 01명 기자입니다. 오늘은 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다른 날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첫 오프닝은 하안복중학교 3학년 4반 친구들이 일과 않고 기억하기 위해 바위처럼이라는 음调和 함께 활력한 공연을 마치고 내빈분들 말씀 후 퍼포먼스와 함께 하안복중학교 경찰서, 천혜영 친구가 멋진 말로 자유헌영을 해주어서 더욱 볼거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처음과 중간, 마지막에 일본정부는 사과하라, 일본정부는 정식으로 배상하라, 역사를 바꾸게 고치고 교육개혁 등의 우리의 의제를 다 같이 외치는 시합을 가지며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튜브 정권 복식남에서 평화 나배를 상징하는 노란 옷을 입고 일본 총리인 아베와 '위안부' 에 대해 인종계 판단하는 분들을 편지하는 장면도 찾아보며 저절로 속이 후련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위를 나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위안부 수위상 옆에 앉아 코스트라해하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만히 있으면서도 옆에 계셔서 동생이잖아 않았는데 나중에 걸어다니는것은 보고 대답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수요시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여러 영상을 찾아 보게 되었는데 그 코스트라해하던 분이면서 평소 '위안부'에 관심을 가져던 일본인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일본하면 '위안부'에 대해 안좋은 말만 하는 나라 이러 인식이 있었는데인식이 다 깨질 수 있게해주는 계기가 되었고 일본인에서 직접 하신것도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일본인들이 계신것같아 내심 뿌듯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1385차 수요시위를 참여한 후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참여할때 피켓을 만들고 자세히 배워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들 쉬는 수요일 의미있게 보내길 응원 어떠세요? 이상 01명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토제닉상



6. 한세웅 선생님(남양주 풍양중)의 삶과 연계된 <역사 프로젝트> 수업 사례 나눔

관련 과목		중학교 역사		관련 단위		일제강점기	
수업 주제		평범한 인간은 어떻게 영웅이 되는가?				차시	6
관련 성취 기준		역9222 3·1 운동 이후의 일제 통치 정책의 변화와 192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의 다양한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역9223 만주 침략 이후의 일제 통치 정책 변화와 1930~4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때의 민족 운동이 광복과 연관됨을 설명할 수 있다.					
탐구 질문		평범한 인간은 어떻게 영웅이 되는가?					
학습경험 만들기		이해하기	1. 무명의 독립 운동가들을 선택하고 그들의 삶의 일대기를 탐구 2. 다른 모듬의 독립운동가 UCC를 보고				
		실천하기	1. 무명의 독립 운동가들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한 UCC제작 2. 평범한 인간은 어떻게 영웅이 되는가에 대한 대답하기				
수업 디자인		▶ 1차시 - 영웅의 기준정하기 - 영웅에 대한 사전 인식을 조사하고 실제 역사 속 영웅들을 보며 관점 비교 - 탐구질문 제시하고 탐구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질문 선정 ▶ 2차시 - 결과물 안내 및 모듬계약서 작성 - 결과물 형식과 조건, 참고, 업로드 방식, 대상 인물에 대해 안내 - 제작 일정 공유 및 작성 - 모듬원 계약서 작성 ▶ 3차시 - 인물탐구 및 스토리 보드 제작 - 사전 조사한 인물자료 탐구시간 부여 - 스토리보드 형식 안내와 함께 작성 ▶ 4차시 - 영상 촬영 ▶ 5차시 - 논술 - 선택한 인물을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일화나 사건을 통해 서술 - 평범한 인간은 어떻게 영웅이 되는지에 대한 답을 조별 핵심질문 3가지를 포함해 답하기 ▶ 6차시 - 제작물 공유 및 후기 작성 ▶ 영웅시사회 - 주요 결과물 시사회와 퀴즈 진행					
삶과 연결하기		-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 마치 선천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들만 위대한 위인이 된다는 식의 말이다. 평소 아이들도 역사를 배우며 이러한 태도를 일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번 프로젝트가 의미가 있었다. 범접할 수 없고 신성시되는 역사적 위인들의 삶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면서 영웅들은 선천적인 조건이나 강력한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평범한 인간은 어떻게 영웅이 되는가라는 탐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평범한 자신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영웅의 잠재성을 자각하도록 하였다.					
평가 디자인		- 과정평가 10점(프로젝트 용지의 내용과 조별로 나눠준 출석표, 마지막 후기 작성과 동료 평가를 통해 평가) - 논술 15점					
수업 성찰		- 장점 : 영상을 촬영해 UCC를 만드는 데는 단순히 연기적인 요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촬영과 각본 그리고 인물 탐구 자료에 대한 이해, 미적 감각, 소품 등 그 종류와 필요 능력은 너무나도 다양해서 역사를 주제를 함에도 정말 다양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자신의 장기를 펼칠 수 있는 기회였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동아리에 있는 아이는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해 UCC를 제작했고 미술 동아리 회장의 친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하였다. 프로젝트의 종합적인 결과물 제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다. 또한 결과물을 반에서 공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급에 해당하는 홍보와 지원이 있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사명감이나 자부심이 눈에 보일 정도로 커졌고 자기 자신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 단순히 수행평가를 넘어 의미 있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그 자긍심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는 감동은 대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자긍심으로 이어 프로젝트 탐구 질문이었던 ‘평범한 인간은 어떻게 영웅이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 자기 자신들이 저 역사적 위인들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느끼게 된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 단점 : 무려 6차시에 달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면서 백 워드를 사용해 진도를 통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에 대한 부담이 되었던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다. 또한 혼자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다른 능력을 가진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줄 때 많은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UCC 촬영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느라 충분히 확보해주지 못했던 인물탐구 시간으로 인해 아이들이 부담이 되었던 것이 단점이었다. - 보완점 : 우선 역사의 단독 프로젝트에서 미술과 혹은 국어과와 융합 수업을 통해 수업 차시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나 동일한 결과물로 다양한 교과가 평가하면서 ‘아이들이 전년에 비해 느끼게 될 부담감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 또한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던 인물탐구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단순히 인터넷 검색을 넘어 독서 교육과 결합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결과물의 완성도에 너무 집착했던 작년과는 다르게 완성도보다는 그 기본이 되는 이해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생각이 잘 전개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제형 탐구를 없애고 차 시내에서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학습 자료 및 tip		- 프로젝트의 탐구 질문은 적절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답이 명확하면 안 된다. - 프로젝트 탐구 질문은 아이들의 동의하에 제시되어야 한다. - 프로젝트 결과물 UCC를 촬영 단계에 쉽고 간편한 안내가 있어야 하며 적절한 예시자료가 있어야 한다. -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공유되어야 하며 모두 동일한 스케줄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 프로젝트 결과물은 적절한 수준의 공개와 발표가 있어야 한다. - 이 모든 팁들은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나온다. 요약 정리는 본 밴드에 업로드하였다.					

풍양중학교	일제강점기 잊혀진 슈퍼히어로 찾기 - 모듬 역할 정하기 -	모듬활동지
중3 역사		3학년 ()반 모듬명 () 팀원 (), (), (), (), ()

◎ 프로젝트 주요 결과물 안내

	UCC 제작	범주	대상 인물
형식	- 중요한 사건과 일화를 중심으로 한 짚막한 스토리 형식 - 일반인이 독립 운동가를 소개하는 인터뷰 형식 - 사진과 문헌자료, 그래픽, 내레이션 등 다양한 형식	3.1운동	현순, 이회영, 최창식
		무장투쟁	김경천, 지청천, 양세봉, 홍범도, 윤세주
조건	5분 내외로 영상제작 - 영상제작인물은 오른쪽 대상 인물로 제한 ----->> -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영웅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의열투쟁	강우규, 의열단, 나석주
		외교운동	이상설, 이준, 이위종, 김규식
참고	- 편집프로그램 : 네이버에 “곰믹스”or“다음 팟 인코더”를 다운하여 이용 - 음원or효과음 : YOUTUBE 라이브러리 무료음원 다운 - 영상 참고 : 유튜브에 “역사 UCC” 검색 후 감상 - 자료 참고 : 국가 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교육·언론운동	이운재, 이동녕, 양기탁, 이승훈(오산학교), 주시경
		문화예술, 과학기술	권기옥, 정세권(건축), 나운규
업로드	- 완성된 영상을 편집하여 YOUTUBE에 <<풍양중 3-()반 ()모듬 역사 UCC - (인물이름)>>으로 영상 게시. - 각 반의 영상의 1~8모듬 댓글아래 대댓글로 <<3-()반 ()모듬 ()번 (이름) : (감상평 두 문장이상)>>라고 달 것.	이론·사상투쟁	조소앙, 신채호
		기업	안희제
		여성	김마리아, 남자현, 정정화, 주세죽, 김숙경 (3.1만세, 대한애국부인회), 이정숙(3.1만세, 대한애국부인회)
		청년·학생	배화여고생, 비밀결사단, 함석은(대한독립청년당)
		사회주의계열	이동휘, 여운형, 권오설, 조병호
		외국인	헐버트, 스코필드, 조지루이스 쇼(이룡양행), 피치, 멘지스(호주, 일신여학교)
		해외 한인운동	최재형, 박열, 박용만, 황마리아
		음악	한요한, 정율성

◎ 프로젝트 결과물 제작 일정 계획하기

5~6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8	29	30	31	1	2	3
	1반 인물탐구	1반 촬영 2반 인물탐구 5반 인물탐구	2반 촬영 3반 인물탐구 6반 인물탐구			
4	5	6	7	8	9	10
7반 인물탐구 5반 촬영 6반 촬영	1반 논술 3반 촬영 4반 인물탐구 9반 인물탐구	1반 영상 업로드	1반 영상 댓글달기 2반 영상 업로드 2반 논술 4반 촬영 7반 촬영	2반 영상 댓글달기 9반 촬영 8반 인물탐구		
11	12	13	14	15	16	17
6반 영상 업로드 6반 논술 5반 영상 업로드 5반 논술	3반 논술 3반 영상 업로드 5반 영상 댓글달기 6반 영상 댓글달기 8반 촬영	3반 영상 댓글달기	4반 영상 업로드 4반 논술 7반 영상 업로드 7반 논술	4반 영상 댓글달기 7반 댓글달기 9반 영상 업로드 9반 논술	9반 영상 댓글달기	
18	19	20	21	22	23	24
	8반 영상 업로드 8반 논술	8반 영상 댓글달기				

◎ 모듈 구성

	담당 이름	연락처	모둠 계약서
자료 조사 1			나 ()는 ()를 맡고 책임지며 모둠의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 성실히 기여하겠습니다. 약속 하겠습니다. 3학년 () () (인)
자료 조사 2			나 ()는 ()를 맡고 책임지며 모둠의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 성실히 기여하겠습니다. 약속 하겠습니다. 3학년 () () (인)
스토리 제작			나 ()는 ()를 맡고 책임지며 모둠의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 성실히 기여하겠습니다. 약속 하겠습니다. 3학년 () () (인)
영상 편집			나 ()는 ()를 맡고 책임지며 모둠의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 성실히 기여하겠습니다. 약속 하겠습니다. 3학년 () () (인)
			나 ()는 ()를 맡고 책임지며 모둠의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 성실히 기여하겠습니다. 약속 하겠습니다. 3학년 () () (인)

◎ 프로젝트 결과물 제작을 위한 필요 목표 목록 작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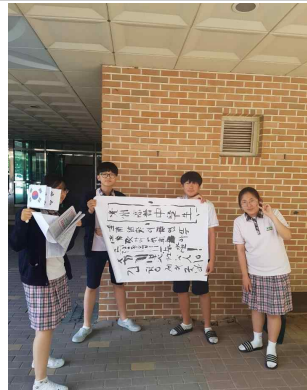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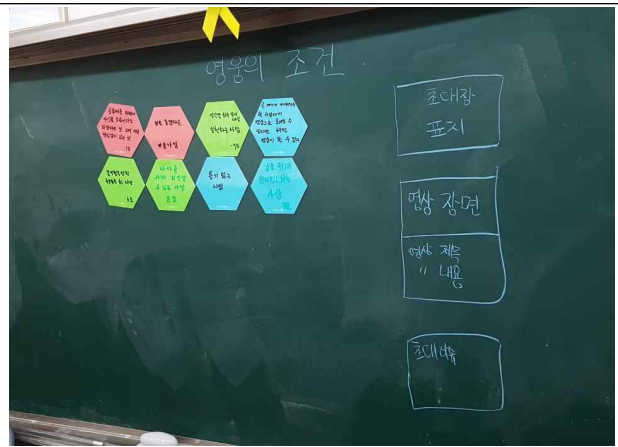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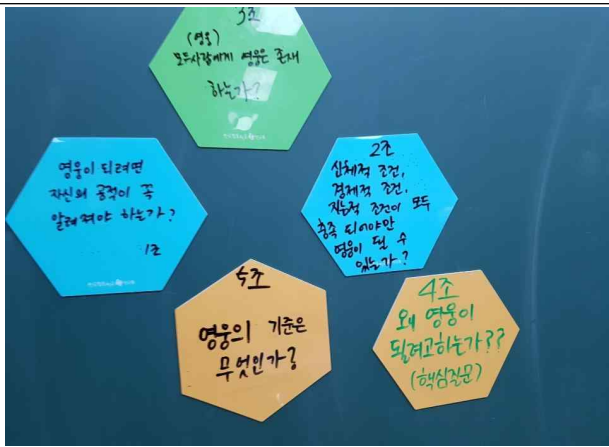
	필요목표 목록 작성	
	목록	해결책
필 수 목 록	1. 영상 제작 인물은 누구로 할 것 인가?	
	2. 조원 중 자기가 맡은 일을 안하는 조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3. 평범한 인간은 어떻게 영웅이 될까?	
자 유 목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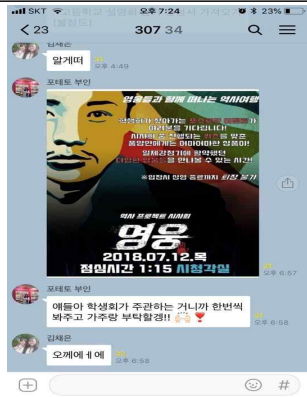
풍양중학교 역사 ‘평범한 인간은 어떻게 영웅이 되는가?’

UCC 스토리보드

()월 ()일 ()교시		팀원	학년반번호	이름
팀 이름 :				
No.	화면	화면구성 효과	소리 효과	준비사항

No.	화면	화면구성 효과	소리 효과	준비사항





7. 이지은 선생님(화성 봉담중)의 삶과 연계된 <독립운동가> 수업 사례 나눔

관련 과목	중학교 역사	관련 단원	일제 강점기
수업 주제	독립운동가 조사를 통해 내 삶의 자세 돌아보기		차시 3
관련 성취 기준	역9222~9224. 일제강점기 일제의 통치 정책의 변화와 그에 맞선 우리의 독립 운동가들의 활동에 대해 파악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내 삶의 자세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핵심 질문	어떤 독립 운동가들이 있고 그들은 어떤 활동을 했나?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		
학습경험 만들기	이해하기	독립 운동가들이 활동한 시대 배경과 그들의 활동 내용에 대해 발표하기	
	실천하기	내 삶을 성찰하는 글쓰기	

수업 디자인	배움 열기	▶ 지난 시간 수업 내용 정리 - 일제의 통치방식의 변화에 대한 퀴즈를 푼다.
	배움 활동	▶ 독립운동가 포스터 만들기 - 이전 시간에 편성된 모둠별로 모이고 각 모둠이 선정한 인물에 대해 조사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터를 완성한다. 포스터에는 그 인물의 활동 시대배경과 활동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사진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함. ▶ 갤러리 워크를 통한 독립운동가 소개 - 한 사람씩 돌아가며 설명해야 하는 갤러리워크 진행 방식을 설명하고 발표순서가 인쇄된 라벨지를 나눠준다. - 3분 동안 돌아가며 설명하고 듣는 사람은 활동지에 들은 설명을 기록한다. - 모든 학생의 발표(설명)이 끝나면 원 모둠에 돌아와 활동지 내용을 마무리 하도록 한다. ▶ 논술쓰기 (글쓰기) - 자신이 조사하고 발표했던 내용과 친구들의 설명을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글쓰기를 한다. - 조사한 독립 운동가를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지에 대해 글쓰기를 한다. - 인물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다.
	배움 정리	▶ 마무리 활동 - 잘 쓴 예시문을 공유하며 독립운동가의 삶의 자세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방식을 깨우친다.
	삶과 연결하기	▶ 포스터 전시 및 삶의 자세 돌아보기 - 독립운동가 포스터를 전시하여 모든 반의 포스터를 공유한다. - 독립운동가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글을 써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평가 디자인	- 청자와 소통하며 능숙하게 발표 했는지와 자신이 조사한 인물에 대해 올바르게 서술하였는지 평가한다. - 복도에 포스터를 전시함으로써 독립 운동가를 기억하고 추모하도록 한다.
수업 성찰	-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독립운동가에 대해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교과서 밖의 인물들을 발굴하는 수행평가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교과서에 실린 독립운동가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한정짓지 않기로 했다. 이 활동을 하면서 학생이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이 수행평가를 계획한 취지에 적합했다. 갤러리 워크를 통해 모두가 아이들이 적어도 자신이 조사한 사람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면서 능동적인 자세를 기를 수 있었다. 갤러리워크를 통해 알게 된 내용과 자신의 삶과 연계시키는 글쓰기를 통해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조사-발표-글쓰기의 활동 전체가 평가와 연결된 점이 만족스러웠으나 활동 중간중간 피드백이 부족했던 것이 아쉽다.	
학습 자료 및 tip	- 모둠 구성은 성적과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지정하였다. - 한 반 안에서 조사하는 인물이 겹치지 않게 하였으나 전교생을 대상으로 겹치지 않게 했다면 더욱 다양한 인물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 갤러리워크 시 청자와 발표자 사이에 소통을 늘릴 수 있는 장치(예: 질문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한다)를 넣으면 모두가 더욱 적극적으로 발표에 참여할 수 있다.	

※ 실제 학습활동 당시의 사진이나 활동지, 결과물 등이 있다면 꼭 첨부해주세요. 발표 PPT 자료와 지도안 자료는 PDF로 변환되어 역사교실에서 배포될 수 있습니다.

권기옥 90
(1920)
68.2

그는 누구인가

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a young woman, likely a pilot, wearing a flight helmet and goggles. She is smiling and looking directly at the camera. The image is framed within a larger document layout.

사망 - 1988.4.19

→ '송죽회'에 가입하여 독립운동 기금을 모으다가 독립운동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남자현

1872.12.07 ~ 1933.08.22

↳ "민족의 강인한 독립정신 인식"

- (조기해방기범주, 주석, 조민지)

3.1.1 동

일본은 **승전국** 이었기 때문에 **문화통치**를
 통해 전후의 혼란을 관리함. 결국 전 이념들은 계속해서 격발되고
 국민들이 다들 반공을 앞세움



김사오 1890.5~1923.1.22



「^새새사가 이번 거사에 달렸소.
만약 실패하면 내세에서나 뵙시다.
나는 자결하며 뜻을 지킬지언정
적의 편가 되지는 않소.」

시도
6
양사

먼저 출생 장소인 서울과 가까운 여흥의 양반의 집에
 유년일 김삼, 밑잡이 안재 등과 친하게 알게되어 받들었다. 1923년 1월 17일 새벽 3시, 20여명의 무장 병력
 10여명 두문자 관총을 들고 자기의 초가를 치기 위하여 군 - (친정아버지 양아버지, 숙부, 서촌에 주둔하다 평 - 군)
 그날 1월 17일 2월 새벽, 최후의 관제에서 한 경찰에게로 갔다. 다시 4개의 경찰에게서
 400여명의 무장 병력이 출동, 마지막 안을 할 말로 서로 격한 입상, 34명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일제와 계속 싸우는' 독립 의지를 만방에 알리다.

‘일제와 계속 싸우는’ 독립 의지를 만방에 알리다.

309 1조 문소연 이지인 최용우 황인도

또는 1920년대 문제경쟁기. 이 시기에 일본이 엄청난
금마리를 뚫게 만든 단체가 있었으니 바로 의협만이었다.
다. 일본은 의협만 독립투사들을 부리내기 위해 주요 독립
투사들이다. 현상금을 걸었는데, 가장 많은 현상금이 걸려있는 사람 중 한 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이다. 그 때 당시 백범 김구 선생에게 걸려있던 현상금은 60만원. 지금 돈
으로 환산하면 180억이라는 현상금이었다. 그런데 김구 선생보다 훨씬 많은 현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걸려있던 현상금은 100만 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300억 원이다. 그 사
람에 대해 알아보자!

1910년: 대한제국은 일제로부터 국권을 빼앗기면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1919년에 대한 독립을 외치는 3·1운동이 일어났지만 3·1 독립 선언을 열강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무력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로 인해 무장투쟁론의 중심에 서서 이러한 단체가 만들어졌다.

활동내용
1908~1913 보통학교, 중등학교 재학 → 1919 의월당 단합조의 무장투쟁 → 1929 상해에서 경성학교 개설
→ 1930 조선 공산정권지 운동결정 → 1935 중국의 중의를 얻어 조선 의용대 편성 → 1944 임시정부 군부

6년여에 걸쳐 의열단 단장으로 대규모 암살 계획 및 폭탄 투척 사건 등을
배후에서 지휘·조종하였다.

- 일일·일월 폭탄 반습시건
 - 부산 경찰서 폭파사건
 - 일일 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
 - 조선 공작부 폭탄 투척 의거
 - 상하이 황포탄 의거
 - 홍로 김합서 폭탄 투척 및 삼관동 출
 - 도관 니루시 폭탄 투척
 - 등암 적십자회사 & 식산은행 폭탄 투





<역사연표 제작> 수업 사례 나눔

수업 주제	(학년생활교육과정재구성) 1학년-만남(3월) : 나의 인생 연표 제작		차시	1
성취 기준	[10한사01-01] 역사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과거를 현재의 삶과 관련지어 인식함으로써 역사를 학습하는 목적을 이해한다.			
핵심 질문	▶ 지나간 사건들 중 어떤 것이 역사로 기억되는가? ▶ 연속적인 시간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 과거는 현재와 관련이 있는가? ▶ 개인의 삶과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학습경험 만들기	이해하기	▶ 역사 연표의 구성 이해하기 ▶ 시대구분 및 시간의 흐름 이해하기		
	실천하기	▶ 나의 삶을 역사 연표에 비추어 돌아보기 ▶ 친구의 삶을 역사 연표를 통해 이해하기		

수업 디자인	배움 열기	★ 질문 던지기 역사란 무엇일까?
	배움 활동	1. 연표 이해하기 ▶ 교사의 인생을 연표로 그려 소개하기 2. 연표 나타내기 ▶ 시간 표현하기 : 내가 살아온 시간을 표시하고 1년씩 일정하게 나누기(가로축) ▶ 사건 떠올리기 : 지난 삶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떠올려 해당 시기에 쓰기 사건이 나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 점 찍기(세로축) [확장] 역사사건 기록하기 : 나의 삶과 거대역사의 연결고리 찾기 ▶ 인생곡선 그리기 : 사건과 사건을 연결하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보기 ▶ 시대 구분하기 : 비슷한 사건들을 묶어 하나의 시대로 정의내리기 3. 연표 나누기 [사전] 진단고사를 통해 3~4인으로 된 모둠 구성(1/4분기 거꾸로팀티칭용) ▶ 모둠 공유 : 모둠장이 진행을 맡아 돌아가며 자신의 연표를 소개하기 과거를 비추어 앞으로의 자신의 삶과 다짐을 나누기 ▶ 학급 공유 : 모둠 내 가장 역동적인 삶을 산 친구 1명을 선정하여 전체공유하기
	배움 정리	★ 질문 답하기 역사란 무엇일까? ▶ 역사에 대한 나름의 정의내리기 : 나의 몇 몇 의미 있는 사건들이 모여 인생사가 되듯, 인류가 겪은 과거의 수많은 사건들이 모여 역사가 됨을 인식
	삶과 연결하기	▶ 고등학교 1학년 3월 첫 주, 여러 가지 새로운 만남에 어색한 학생의 상황 이해 ▶ 현재의 내가 과거의 연장선 끝, 그리고 미래의 시작점에 서있음을 인식 ▶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고등학교 새로운 출발을 다짐
평가 디자인	1. 한국사 + 영어 + 국어 융합에 따른 수행평가 [영어] 자기 소개하기 → [한국사] 나의 인생 연표 그리기 → [국어] 내 인생의 시 소개하기 ⇒ '나의 삶을 담은 미니 북 제작하기' 형태로 국어 수행평가에 반영 2. 한국사 거꾸로팀티칭을 위한 아이스브레이킹 및 관찰일지 반영 모둠원 각자 다른 강의를 들어온 뒤 서로 설명해주는 거꾸로팀티칭 전 아이스브레이킹 활동 거꾸로팀티칭 수행평가에 기록지인 관찰일지를 통해 반영 3. 살아있는 현대사 연표 제작하기 수행평가 연계 40세 이상 어른 중 한명을 인터뷰해 현대사 사건과 연결하는 연표제작 수행평가의 사전활동	
수업 성찰	▶ 교사는 있으나 학생이 없는 수업 학원강사로 있다 뒤늦게 시작하게 된 교직생활. 영화수업, 사진수업, 거꾸로수업... 나름 다양한 방법으로 알차게 역사를 가르쳐 왔다 뿌듯해하던 작년 가을 즈음, 혁신학교 종합평가를 준비하며 수업을 돌아보다 문득 '앓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과정 재구성' 앞에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학생들이 주도적인 수업이었음에도 내 수업에는 학생이 없었다. 앓은 있되 학생의 삶이 없었다. ▶ 학년 교육과정 재구성 앓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과정을 고민하면서 학생들의 1년 삶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혁신부에 있으면서 학년부 교사들과 함께 주도하여 학생 삶 관련 테마를 월별로 세우고, 모든 교과가 고민하며 수업을 설계했다. 학생의 삶의 일부가 되는 조각으로서의 역사수업이 다른 조각과 만나 함께 학생의 삶에 다가갈 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	
학습 자료 및 tip	▶ 교사의 연표 소개 교사의 삶을 연표로 먼저 나타내야 보아야 한다. 또 중간에 퀴즈를 내고 간단한 상품을 증정하며 학생과의 레포를 형성하는 것 또한 필요! ▶ 연표 나눔 모둠 내 연표를 공유할 때 자신의 연표를 타인이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모든 것을 말하기 보다는 주요 핵심 사건 위주로 소개하도록 한다.	

0. 역사란 무엇인가? 나의 역사 + 영어, 국어

※ 나의 역사연표 그리기

1. [시간] 시간의 흐름을 표현해보자. : 나는 얼마의 시간을 살았는가? 
2. [사건] 중요한 사건을 나타내보자. : 지난 삶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은 무엇이 있는가? ●
3. [인생곡선] 시간을 구부려보자. : 나의 시간은 똑같이 흘러갔는가? 
4. [시기구분] 시기를 구분해보자. : 내 인생을 여러 시기로 나누어서 제목을 붙인다면? 

>+<	
인생 곡선	
π.π	
시기 구분	
년도 (나이)	
나의 사건	
역사 사건	

※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보자.

1. 표시한 사건이 왜 중요한지, 시기를 위와 같이 나눈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2. 과거를 비추어 앞으로의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 역사란 무엇일까?